



환경 지킴이 신규 단원 소개

2025년 9월, 부산일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일부가 환경 지킴이 신규 단원이 되었다. 환경 지킴이 단체는 지구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학생 자율 단체다. 환경과 기후 변화, 생태 보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환경 지킴이로서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배운 것들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등의 활동 소감을 전했다.

세계 자연 기금(WWF)



WWF(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6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자연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 해양, 산림, 담수, 야생동물, 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 거버넌스 영역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지역사회, 기업, 정부 및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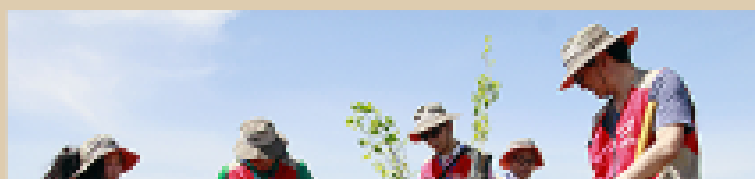
"45도 폭염이 10일째"...남유럽 기록적 산불에 수천명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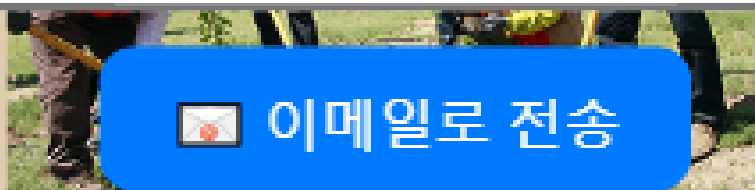
"45도 폭염이 10일째"... 남유럽 기록적 산불에 수천명 대피

45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강풍에 시달리는 남유럽이 연쇄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알바니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관광객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 파트라스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전날 주민 77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13일에는 인근 두 마을에도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남유럽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다. 온난화로 지중해 해수 온도가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유럽 상공에 고기압 세력이 발달하면서 장기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의료단체, 나눔 프로젝트... 나무심기·의료·컨돌 지원 활동 펼쳐



이메일 주소 입력



'나무심는 사람들'은 지난해부터 몽골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원들은 2ha에 이르는 초원지역에 시베리안 포플러 1년생 300여 그루를 심었다. 식목 행사는 마친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들은 환경재단·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게르(몽골 유목민의 이동식 집)촌을 찾아 태양광 전등을 전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배출시설은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나 가동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주요 오염원으로 분류되어, 차량 종류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 곳곳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이 자료는 '에어코리아(AirKorea)'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대기환경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목표-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7명 중 1명은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다. 에너지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며, 온실가스의 60%를 생산한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2017년에 1억 3100만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해결방안

1.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재생 에너지 기술 이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2.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창호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후 건물 리모델링 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한다.
3.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게 전기 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한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소한 쾌적한 환경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두번째 지구는 없다" - 타일러 라쉬 '언어 천재' 타일러, 코로나 이후의 위기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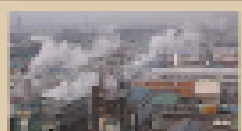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통해 타일러는 자연과 단절된 현대인을 '빅박스스토어'에 갇힌 채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에 비유한다. 인공 시설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단단하고 영구적인 것처럼 여기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산업과 소비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인간은 기후위기를 유발해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멸종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이제 최소한 독자들은 서로서로 가볍게 혹은 무겁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지만 사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후대에는 지금의 자연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개 급진적이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하지만 정말 이제는 직시하고 불편하더라도 언급하고 생각해야 한다.



자연 보전

WWF: 지구를 지키는 세계의 약속



녹색 정책

기후정책: 대기환경보전법



기후 위기

환경 도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